

외환리포트

전일동향	전일대비 4.10원 하락한 1,389.50원에 마감					
20일 환율은 전일대비 4.10원 하락한 1,389.50원에 마감했다. 이날 환율은 NDF 증가를 반영해 전 거래일 대비 3.60원 하락한 1,390.00원에 개장했다. 간밤 달러가 반락하고 뉴욕증시가 반등한 영향에 하락 출발한 환율은 개장 이후 꾸준한 당국의 미세조정 영향에 상방 압력이 막힌 움직임을 지속했다. 위안화가 장중 약세를 보였으나 1,390원을 상단으로 상승 움직임이 제한됐다. 오후에도 달러 강세가 제한되면서 실수급 위주로 한산한 장세가 이어지며 환율은 1,389.50원에 마감했다. 장중 변동 폭은 3.30원이었다. 한편, 이날 외환시장 마감시점의 엔-원 재정환율은 968.02원이다.						
전일 달러 변동	시가	고가	저가	종가	평균환율	
	1390.00	1390.40	1387.10	1389.50	1389.10	
전일 엔화 변동	시가	고가	저가	종가		
	972.54	972.54	965.06	966.54		
전일 유로화 변동	시가	고가	저가	종가		
	1396.71	1398.06	1382.59	1385.20		
F/X(달러-원) 스왑포인트		1M	3M	6M	12M	
	보장환율(수출)	-0.38	-3.31	-10.03	-21.94	
	결제환율(수입)	-0.06	-2.51	-8.88	-20.03	
	* 전일자 청약고객이 수취한 스왑포인트로 당일자 청약시에는 시장상황에 따라 변동					
	* 해당월 말일(영업일)까지의 스왑포인트 기준					
* 자세한 사항은 환위험관리 지원센터 홈페이지(https://www.ksure.or.kr/rh-fx/index.do)에서 확인가능						
금일 전망	FOMC 관망 속 위안화 약세에 연동하여...1,390원 회복 시도 예상					

NDF에서 환율은 스왑포인트(-1.30원)를 고려하여 전 거래일 현물환 증가(1,389.50) 대비 3.30원 상승한 1,391.30원에서 최종호가 됐다.

금일 환율은 위안화 약세 부담 및 FOMC 관망 속 위험선호 심리 부진 영향에 1,390원 회복이 예상된다. 위안화 약세 압력이 재차 확대되자 원화를 비롯한 아시아 통화에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스웨덴 중앙은행의 울트라 스텝으로 연준 긴축에 대

한 경계감이 확산되며 국내 증시 외국인 자금도 순매도 규모를 확대할 가능성이 농후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수급상 결제수요가 상대적 우위를 점하고 있는 점 또한 금일 환율 상승 분위기에 일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당국 미세조정 경계 및 수출업체 네고물량 유입은 상단을 경직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일 달러/원 예상 범위	1388.00 ~ 1396.67 원
체크포인트	■ 전일 외국인 주식 매매 동향 : -582.46 억원
	■ 뉴욕 차액결제선물환율(NDF) : 전일 서울외환시장 현물환 대비 3.10원 ↑
	■ 美 다우지수 : 30706.23, -313.45p(-1.01%)
	■ 전일 현물환 거래량(종합) : 83.95 억달러
	■ 전일 외국인 채권매매 동향 : +1311 억원

주의사항

※본 리포트는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외부기관으로부터 획득한 자료를 인용한 것입니다.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